

세상의 빛

Light of the World

(Prologue)

(조명이 어두워지면 (어두침침한 저녁), 촛불 점화자가 무대 왼쪽으로 촛불을 가지고 등장한다. [점화하지 않음])

나레이터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은 하나님에 말씀하시거 전까지 어둠 안에 있었습니다.

Music by Mark Patterson

홍정표 역

Slowly, misterioso (♩ = ca.76)

나레이터2: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해가 하늘을 밝게 비추고, 달과 별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촛불 점화자가 초를 점화한다. 그리고 희중 앞에 선다.
천천히 무대 가운데로 가서 중앙 테이블 뒤에 선다.)

나레이터3: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다른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의 빛이 어린 아이의 눈을 통해 빛나게 될 것이다.
그 빛은 죄로 뒤덮인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빛이다."
(촛불 점화자는 희중 앞에 계속 서 있다. 그리고 나레이터가 '희망'이라는 말을 낭독할 때 촛불을 들어 올린다.)

이 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

www.vitnara.com

뒷부분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